

문학과 종교 Literature and Religion

박 춘 덕*

목 차

I. 서 론

1. 연구 목적 및 방법
2. 연구사 검토

II. 문학과 종교

1. 문학과 종교의 융합 가능성
2. 문학과 종교의 공통점과 차이점
3. 기독교 문학의 기원
4.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I. 서 론

1. 연구목적 및 방법

기독교가 이땅에 수용된 지 200여년이 지난 오늘날 기독교 사상과 모랄은 이미 우리 민족의 정신사의 한 갈래로서 엄연히 자리잡았고, 우리 문학사에서도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구태어 형태론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더라도, 이미 기독교문학 자체가 국문학史 속에 엄연히 자리잡아 '기독교 휴머니즘'이라는 기독교 정신의 승화가 이루어졌음이 사실이다.

그간 기독교문학에 대한 몇몇 先學의 고구가 있었으나, 기독교문학의 의미가 우리 문학사에서 더욱 더 중대시되어 가는 오늘날, 보다 본격적인 개념규정과 장르규정이 필요하게

* 조교수(교양), 국문학전공

되었다. 또 기독교시의 우리 문학사에서의 위치설정이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되었다.

그래서 本考는 기독교와 문학 간의 본질적 유사점과 차이점을 美學的인 측면에서 살펴, 기독교문학 또는 기독교시가 장르개념으로 존재가능함을 살핀 다음, 기독교시를 서정양식의 하위장르로서 國文學史上에 설정해 보려 한다.

기독교시의 장르개념 및 범주설정에 있어서는 타 학자들의 견해들을 바탕으로 하면서, 보다 본질적으로는 성서적 메시지의 詩化 또는 복음내용의 言語的 肉化 여부를 근거로 삼으려 한다. 다시말하면, 성서적 소재나 상징이 드러나는가, 성서적 패턴이나 구성법을 사용하였는가, 성서적 모티브가 드러나는가 등을 깊이 천착해 보려는 것이다.

2. 연구사 검토

지금까지 나온 기독교문학에 관한 연구성과를 검토할 때 다음과 같은 몇 영역의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기독교 유입과정과 번역된 찬송가 및 시가류가 우리 근대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¹⁾,

둘째, 최남선과 이광수의 신시에 나타난 기독교 의식에 대한 연구⁽²⁾

셋째, 기독교문학의 일반론적 연구로서 원론적 연구⁽³⁾와 기독교시에 대한 연구⁽⁴⁾

넷째, 30년대 이후에 활동했던 기독교시인들, 즉 정지용, 윤동주, 박두진, 김현승, 구상 등에 대한 연구이다.

이들은 주로 문학사적 자료나 신앙적 내용을 바탕으로 한 연구물로서 등한시 한 한계가 있다. 좀더 종합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이들의 연구성과를 중요한 것들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김영덕, "한국근대문학 배경과 기독교", 「이대논문집」 6집(1966).
金秉喆,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을유문화사, 1975).
구창환, "한국문학의 기독교사상 연구", 「한국언어문학」15집(1977).
정한모, "기독교 전교시대와 한국문학", 「한국문학」(1976. 2).
- (2) 梁汪容, 「한국근대시연구」(삼영사, 1982).
조신권, 「한국문학과 기독교」(연세대 출판부, 1983).
- (3) 김하태, "현대문학과 기독교 전통", 「기독교사상」(1961. 8).
조연현, "종교와 문학", 「기독교사상」(1961. 8).
전영택, "기독교 문학론", 「기독교사상」(창간호, 1957).
조남기, "기독교 문학론", 「기독교사상」(1978. 9).
장백일, "고독 속에서 찾는 求道", 「기독교사상」(1976. 8).
최중수, "종교와 문학의 관계", 「神學指南」(통권80호, 1978. 봄호).
황현식, "한국 기독교문학의 모색", 「기독교사상」(1982. 1).
——, "기독교의 영향과 문학적 수용", 「기독교사상」(1976. 8).
김희보, "한국문학과 기독교"(현대사상사, 1979).
김주연, "현대문학과 기독교"(문학과 지성사, 1984).
김영수, "기독교와 문학"(한국기독교 출판부, 1978).
조신권, 「성서와 문학」(신원문화사, 1986).
——, 「성서문학의 이해」(연세대 출판부, 1978).
장일선, 「구약성서의 문학」(대한기독교 출판사, 1984).
신규호, 「한국인의 聖詩」(한국문연, 1986).

첫번째 부류로서 기독교 유입과정과 찬송가류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김영덕과 김병철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김영덕은 성서 번역에 따른 국문 보급과 영향, 기독교가 동학란·갑신정변의 정치적 과도기에 미친 영향 등을 문화적·사회적 배경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또 김병철은 성서와 찬송가 번역사 및 초기 애국가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설명하고 있다.

박태욱의 "한국 현대시의 기독교 사상"⁽⁵⁾은 200년의 짧은 기독교 역사 때문에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였다고 하며, 기독교시를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독교 신앙의 수용과 현실 반응에 관한 종교적, 문학적 고찰은 하성래의 "天主歌辭에 대하여"⁽⁶⁾ "한국어문학에 끼친 천주교의 영향"⁽⁷⁾에서 상세히 논의된다. 여기서는 특히 천주교의 한국 상륙에 따른 역사적 사실과 天主歌辭의 제작동기와 의의 및 가치가 상세히 다루어졌다. 이를 내적, 정신적인 상황 인식으로 심화시킨 權菊命⁽⁸⁾·申奎浩·幸福龍⁽⁹⁾은 기독교문학의 수용 현실에 대하여 깊이 있게 진단하고 있다.

두번째 부류인 초기 최남선과 이광수의 기독교시에 대한 연구는 양왕용, 조신권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양왕용은 기독교문학에 대한 정의를 내린 다음, 兩人的 기독교시를 분석하였고, 조신권은 기독교의 수용과 문학사적 의의, 개화기 문학과 기독교, 최남선과 이광수의 시가에 나타난 기독교 의식 등으로 항목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세번째 부류의 원론적 연구는 대개 기독교문학의 일반적 개념이나 특성, 기독교문학의 방향, 문학과 신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다.

김희보와 김영수의 글은 바로 이러한 측면의 연구들로서, 신학과 문학의 상보적 관계, 기독교문학의 본질, 기독교문학사, 기독교 문학의 작품분석 등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조신권, 장일선도 성서를 문학적 입장에서 분석하여 그것에 나타난 설화·비극·풍자·지혜·묵시·예언문학 등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고, 신규호는 특히 18C 후반 천주교 가사로부터 현재까지의 대표적인 기독교시를 10년 단위별로 구분하여 소개하였다. 그는 18C 이후 개화기 무렵의 무명의 시가류와 초창기 신앙시를 작품주석을 달아서 소개하고 있다. 부록편에서도 연구사 및 문제점 제기, 기독교 시문학의 개념 및 시문학사의 정리, 참고자료 및 문헌소개 등 기독교 시문학을 체계화하였다.

구창환도 "한국문학의 기독교사상 연구"에서 기독교문학의 개념을 총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정의한 바 있으며, 박두진 또한 「한국현대시론」, 「현대시의 이해와 체험」⁽¹⁰⁾에서

- (4) 김주연, "한국현대시와 기독교", 「기독교사상」(통권315호, 1984. 9).
金榮秀, "沙漠과 仙人掌 上·下" 「현대문학」(통권118호, 1964. 10).
박두진, "기독교와 한국의 현대시", 「현대문학」(통권118호, 1964. 10).
박이도, "한국기독교시의 형성", 「기독교사상」(1981. 4"9).
——, "한국현대시에 나타난 기독교 의식"(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1984).
이영걸, "기독교와 한국 현대시", 「영미시와 한국시」(문학예술사, 1981).
최중수, "한국의 기독교 시", 「신학지남」(통권182호, 1978. 가을·겨울호).
황금찬, "한국문학에 투영된 기독교사상", 「한국문학」(1976. 2).
- (5) 朴太旭,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 (6) 河聲來, 「국어국문학」 16(제70호)제73호, 국어국문학회, 태학사, 1982.
- (7) 하성래, 「국어국문학」 17(제74호)제76호, 국어국문학회, 태학사, 1982.
- (8) 權菊命, "한국현대시의 종교수용문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대구 대건출판사, 1986).
- (9) 幸福龍, "한국에 있어서 기독교의 수용과 현실", 「씨솔의 소리」, 1974. 6.
- (10) 朴斗鎭, 「한국현대시론」, 일조각, 1970.
——, 「현대시의 이해와 체험」 일조각, 1976.

II. 문학과 종교

1. 문학과 종교의 융합가능성

흔히 문학과 종교는 서로 대립되어 합치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문학과 종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크리스찬 작가들도 마찬가지로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흔히 “크리스찬의 문학” 곧 기독교인의 문학은 가능해도, “기독교문학” 곧 기독교적인 문학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문학과 종교는 합치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크리스찬의 문학”이란 기독교인이 쓴 문학이란 뜻으로서, 그 내용은 기독교와 아무 관계가 없어도 된다는 뜻이다. 반기독교적인 작품도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 흔히 “기독교문학”이라고 하면 얼핏 護敎文學을 연상할 수 있다. 종교를 옹호하는 護敎文學은 전도지이지 문학일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종교와 문학, 또는 기독교와 문학은 합치될 수 없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정녕 ‘기독교문학’이라는 장르의 形成은 불가능한 것일까? 그렇다면 “美의 근원은 神의 속성”⁽¹⁶⁾이라고 한 러스킨의 견해나 “藝術은 온갖 것의 背後에 神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헷세의 견해 등은 문학과 종교의 합일점을 시사하는 듯도 하다. 더구나 프레드 하우스만은 그의 「마르틴」 속에서 “예술가란 것은 神다운 힘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핏을 사용하든지 色을 사용하든지 언어를 사용하든지 간에, 여태껏 없었던 그 무엇인가를 아름답고 진실되게, 그리고 질서와 생명과 영혼을 지니고 있는 무엇을 언제나 창조한다.”라고 하여, 창조의 면에서 공통점을 발견한 바 있다.

그러나,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한 이후 神을 부정한 많은 실존철학자들의 입장이나 또 ‘예술을 위한 예술’을 주장함으로써 인간을 배제하였던 유태주의는 모두 神과 인간을 배제함으로써 기독교문학과는 정반대의 입장에 있고, 따라서 기독교문학의 성립은 불가능해 보인다. 또 프로테스탄트 神學의 거장 칼빈도 기독교에서 음악을 제외한 모든 예술을 부정하였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도 인간적인 것과 문학적인 것을 모두 부정하였는데, 이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한 나머지 이성을 배격하고 이성과 신앙을 너무 엄격히 구별하여, 결국에는 인간성마저 부정하기 때문에 역시 기독교문학의 성립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보이는 것이다.

사실 예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 記錄(文學)도 남기지 않았다. 오직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요한 8 : 6)라는 기록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음악에 관계되는 기록으로는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마가 14 : 26)는 구절을 필두로 여러 군데 보인다.

이상과 같은 여러 이유로 인해 요즘 문학은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휴머니즘의 領域인 반면에, 종교는 인간적인 것에 대한 否定 위에 세워진 神의 세계인 것처럼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실상 기독교문학이란 불가능한 장르가 아니다. 기독교 문학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문학 장르이다. 기독교문학의 가능성은 타장르의 기독교 예술이 현존하는 사실에서 알 수 있으며, 또 기독교문학만의 불가능성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거로 종교, 특히 기독교와 문학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16) J. Ruskin, Modern Painters.

기독교시 장르와 개념에 대한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집약하려 했으며, 이영걸, 신규호, 김영수, 김희보, 명계웅 등도 기독교시의 개념에 대하여 신앙적인 면과 언어예술로서의 시의 形象性 문제로 나누어 제시한 바 있다.

네번째, 30년대 이후에 활동했던 기독교시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지용, 윤동주, 박두진, 김현승, 구상 등의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김현승 시에 대한 연구는 1968년 이후 1982년까지 김종길의 논문 “堅固에의 執念 : 김현승 시의 스타일을 중심으로”⁽¹¹⁾ 등이 기독교 신앙과 시의 형상성 문제를 놓고 論究함으로써, 시와 신앙의 합일 및 기독교시의 詩史的 의의와 가치를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박두진의 시에 대한 연구는 1956년 이후 1984년까지 박양균의 논문 “祈禱의 양상 : 박두진론”⁽¹²⁾ 을 비롯해서 자연에 대한 해석, 관념과 체험의 문제, 신과 인간과의 관계 설정, 예술성과 이념 문제, 신앙시의 성서적 근거 등에 집중되어 있다.

具常에 대한 연구 또한 1979년 이후 1985년까지 구중서의 논문 “存在, 이데올로기의 超越”⁽¹³⁾ 을 비롯해서 표현 형식의 문제, 시와 믿음에 있어서 실존이나 실재의 문제, 존재인식과 역사의식과 가톨릭적 내지는 종교적 구원이나 禪定, 形而上學的 인식과 超越主義, 모순의 원리와 해학적, 역설적 방법, 그리고 연작시 <焦土의 詩> <발 日記> <까마귀> <木瓜 옹두리에도 사연이> <그리스도 폴의 江>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논증되었다.

최근에 발표된 박이도의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기독교 의식”⁽¹⁴⁾ 과 신익호의 “한국 현대 기독교시 연구”⁽¹⁵⁾ 라는 논문은 한국 기독교시 연구를 한층 진전시켰다.

박이도는 위의 논문에서 개화기의 기독교 영향, 기독교 의식의 개념, 기독교문학의 가능성 등을 차례로 살핀 후, 윤동주의 원죄의식과 희생정신, 김현승의 고독과 신앙의 관계, 박두진의 밝음과 메시아 사상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그는 ‘한국 현대시의 전개과정을 문학사적으로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의 영향은 결코 한국시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전제하고, 근대 이후 기독교의 영향권 속에 쓰여진 작품, 그 중에서도 기독교 의식으로 일관한 윤동주, 김현승, 박두진의 시를 통해 한국 기독교시의 가능성과 그 문학사적 성격을 고찰하려 한 것이다. 이들 세 시인은 일상적으로 기독교 의식에 의해 윤리관, 도덕관이 몸에 배고 자연스럽게 율법적인 규범에서 삶의 양식을 구했기 때문에 그들의 시세계는 한국의 詩史에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기독교문학으로서도 한 페이지를 차지한다고 들었다.

한편, 신익호의 논문은 기독교와 시와의 관계, 기독교시에 대한 종합적인 정의, 기독교 시문학사의 체계화 등에 관심을 두고 기독교 시문학을 종합정리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연구사를 종합해 볼 때, 기독교문학 또는 기독교시에 대한 보다 본질적이고 체계적인 美學的인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本考에서는 기독교 정신의 본질 및 문학의 본질을 살핀 다음, 그 둘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 기독교시가 하위 장르로서 성립가능한가 여부를 살피고, 그 근본적인 개념을 성서적 상징이나 모티프, 패턴, 수사법 등을 바탕으로 천착하려 한다.

(11) 金宗吉, 창작과 비평, 1968, 여름호.

(12) 朴陽均, 시와 비평, 1956, 2.

(13) 具仲書, 민족문학의 길, 새발, 1979.

(14) 朴利道, 한국 현대시와 기독교, 종로서적, 1987.

(15) 申翼浩,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7.

기독교문학의 성립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문학과 종교의 공통점과 차이점

문학과 종교와의 관계는 아주 미묘하고 다양하게 얽힌 관계임이 사실이다. 사실 문학의 세계는 상상의 세계, 허구의 세계로서 꿈과 같이 허무할 수도 있지만, 문학은 유기적인 구조물로서 작가의 신앙, 도덕이 암시적으로 반영되어 인간의 실존에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이런 점에 있어서 문학은 도덕 또는 종교와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학과 종교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을 지닌 사람들이 많다. 매튜·아놀드가 “시는 인생의 批評이다”라고 한 것은 문학의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신앙생활이란 인생의 비평에서 도달한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문학과 종교는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프레데릭·로버트슨은 “종교는 詩요, 시는 종교에 이르는 도중의 집이다”고 했고, 신학자 포사이드는 “무릇 참다운 詩는 그 가운데 기독교적인 것을 지니며, 또 모든 참된 기독교는 일종의 詩적인 것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현대 신학자이며, 문학비평가인 에이모스 와 일더는 “동질의 것은 아니더라도 시적 체험과 종교적 체험은 깊고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종교는 그 표현의 과정에서 詩를 필요로 한다”고 했다.

이러한 긍정론들은 문학과 종교의 기능에서 서로의 공통성을 찾아 내어 문학과 종교의 유기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한편, 사무엘 존슨과 같은 이는 종교와 문학의 관련성에 반대하여 “시의 본질은 虛構이며, 시는 예기치 않는 경이를 낚음으로 즐거움을 준다. 그런데 신앙의 제목은 그것이 회귀한 것이라도 이미 모든 신자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이고, 그러한 만큼 신자들은 감정(sentiment)의 新奇함이나 表現의 신기함에서 거의 기쁨(은총)을 받지 못한다”고 하고 또 작가들의 창작활동에 대해서도 “종교는 시인의 想像力의 날개를 잘라버리고, 시적 경건은 즐거움을 줄 수 없다”고 하여 문학과 종교의 유기성을 반대하였다. 사실 종교와 문학 사이에는 공통점과 동시에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문학은 실행을 요구하는 종교이며, 종교는 실행을 조건으로 하는 문학이 될 수 있다. 또 문학은 독자를 구할 만한 영혼을 형성하는 것이며, 종교는 영혼을 구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좋다.

문학은 사태를 묘사할 뿐 해결하지 못한 주제를 제출해도 된다. 그리고 교훈을 암시한다. 이와 반대로 종교는 ‘이러해야 한다’하고 설교하며, 복잡한 문제에 명쾌한 해결을 주고, 또 항상 구원을 당면 목표로 삼는다. 문학의 감상은 자기 자신을 잊고 바라보는 마음, 즉 利害에 대한 무관심이라든가 觀照의 태도로서 할 수 있지만, 신앙은 자기를 버리고 神을 따르는 마음 즉 죄를 회개하는 마음과, 죄를 용서받는데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출발하여, 직접 실제 생활에 그 마음을 나타내는 태도를 필요로 한다.

이처럼 문학과 종교의 첫번째 차이점은 표현방법에 있어서의 차이이다. 문학은 교훈의 암시에, 종교는 준엄한 명령에 각각 중점을 두는 차이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두번째 차이점은 실제 파악면에서도 문학의 이해성은 종합적이며, 종교의 이해성은 반응적인 신앙에서 형성되는 차이가 있다.⁽¹⁷⁾

(17) 김영수, 「기독교문학」, 신원출판사, 1977. PP. 161~165.

“詩가 시로서 자격을 갖출 때에는 諸印象과 諸經驗이 특이하고 예기치 않는 방식으로 결합된 특수한 매개체가 된다.”고 엘리엇가 ‘傳統과 個人의 才能’에서 설명한 것처럼 시는 諸要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며 시정신은 요소를 담아두는 용기이다. 반면에 종교적 이해성은 반응적 신앙에서 형성되어 객관성을 띤다고 했을 때, 그것은 흔히 상당한 역설을 내포하지만 생명적인 조화가 신앙과 신앙인의 수동적 능동적(수용적 반응적) 체험 사이에 이루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오로지 개인과 주관에 초월한다. 엘리엇가 ‘판셀로 안드류스’에 관한 글에서 천명한 것처럼 적절한 종교적 정서는 전적으로 명상의 대상에 의해 환기된다.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전적으로 그 객관에 내포되고, 그 객관에 의해서 설명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諸要素를 결합하는 상상적인 융합과 체험을 초월하고 잠재적으로 聖潔케 하는 실재를 믿는 반응적인 신앙이 모두 효과적으로 現存하는 곳에서는 詩와 종교의 諸面은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⁸⁾

종교와 문학은 기본적으로 다르지만 그것이 심미적으로 결합될 때 ‘위대한’ 문학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위대한 예술’은 종교적 정신적인 것이 표현된 예술이다. 단테, 밀턴, 엘리엇의 시는 좋은 예술인 동시에 위대한 예술이다.

문학과 종교의 세번째 차이점은 美의식과 목적면에서 찾을 수 있다.

원래부터 문학의 목적은 美이며, 작가의 본래의 기능은 美의 創造라고 인식되어졌다. 그러나, ‘美’는 성서적 개념도 아니고 용어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성서는 진실, 정의, 자유, 사랑에 관해서는 말하고 있으나 美에 관해서는 거의, 아니 전혀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¹⁹⁾

그러나 그리스도교 작가가 美의 관점을 회피한다고 해서 예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성서는 美라는 말은 사용치 않았으나 「시편」을 위시하여 많은 시적 표현을 가지고 있다. 성서에 시적 표현이 없었다면 감화력을 잃고 메마른 것이 되었을 것이다.

한편, 작가는 미의 탐구자 이상의 존재이다. 왜냐하면 모든 참 예술의 목적은 인간에게 의미를 말해 주는 것이며, 세계의 의미나 인생의 의미에 관해서 인간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의미의 自己 顯現은 작품에 의해서, 작품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생문제의 해결이 문학의 임무는 아니지만 적절한 해결책을 제공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독자를 위하고 인생의 신념이 투철한 작가라면 인생문제에의 해답을 독자에게 주지 않고서는 못배길 것이다. 이러한 때 문학은 바로 도덕적, 혹은 종교적 문학이 되며,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작가는 엘리엇의 말대로 종교와 문학을 심미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球體感覺을 지닌 작가인 것이다.

종교문학은 종교문학으로서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인생문제에 대한 가장 정직한 해결을 암시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 즉 종교적 체험은 그 표현과정에서 문학적 표현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종교문학은 온갖 문학 중에서 최고의 것이며, 또 어려운 것이다. 단테의 「신곡」과 밀턴의 「실락원」이 가장 훌륭한 보기이다.

이렇듯 종교와 문학은 동질의 것은 아니지만 많은 공통점과 유사성을 통해 종교와 문학의 융합가능성을 추구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위에서 살핀 종교와 문학의 공통점과 이질성이 위대한 종교문학의 창조를 가져올 수도 있으나 자칫 종교시는 문학적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를

(18) 김영수, 앞의 책.

(19) 김영수, 앞의 책, PP. 166~172.

엘리오트는 “왜 거개의 종교시는 그렇게 나쁜가? 왜 시의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종교시는 그렇게도 적은가? 아마도 나는 경건한 불성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신앙시를 쓰는 사람들은 보통 그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느끼기를 바라는 것을 쓴다.”라고 지적했다. 문학자가 종교가인 하면 대개의 경우 종교를 찬박한 것으로 만든다. 무턱대고 감상적인 인간미를 종교와 혼동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다. 문학은 인생의 진상을 적절하게 묘사하여 깊은 감명을 독자에게 줄 정도로 솔직하고 진실한 보고로 그쳐도 좋는데, 어떤 종교적 혹은 도덕적, 또는 정치적인 의의를 덧붙일 작정으로 그럴듯하게 꾸미면 문학으로서 가치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지극히 비종교적인 방식이 되고 만다.

종교나 윤리를 소홀히 다룬 문학작품에 탐닉하는 사람은 耽美者가 되기 쉽고, 문학감상의 여유도 없이 종교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은 狂信者가 되기 쉬운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문학을 창작할 때에나 기독교 문학의 개념을 설정하려면, 위에서 살핀 여러 점을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3. 기독교문학의 기원

또다른 문학과 종교의 융합가능성 즉 기독교문학의 성립가능성은 원시종합예술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독교문학의 기원은 문학의 기원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흔히 원시종합예술인 발라드 댄스(Ballad Dance)를 문학과 예술의 기원으로 삼는데, 최초의 발라드 댄스에 대한 기록은 이스라엘 민족의 홍해 승리에 관한 기록과 다윗의 예루살렘 창건 기록으로 성서에 남아있기 때문이다.⁽²⁰⁾

몰턴(Moulton)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기독교문학의 기원설로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이다. 「文學形能의 근본적 요소는 Ballad Dance(民謠舞踊)이다. 이것은 운문과 음악의 반주와 무용의 결합인 것이다. 문학이 처음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를 취한다. 주제 또는 이야기는 즉석에서 운문(律文)으로 꾸며져 음악과 더불어 동작화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에서 승리했을 때 미리암이 “손에 소고(小鼓)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출15:20) 이것은 民謠舞踊이었다. 다윗이 예루살렘의 創建 때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삼하 6:14)했을 때는, 그것은 같은 것의 더욱 복잡한 실례였다.”⁽²¹⁾

이러한 주장을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살펴볼 수 있다. 동예의 「무천」, 부여의 「영고」들이 그것이며, 우리나라의 最古代 서사시의 하나인 「구지가」도 가락국 시조 수로왕의 下降과 이를 환영하기 위한 민중의 합창이었음은 국문학사에 명기되어 있는 사실이다.

이렇듯 동서양을 막론하고 종교에서 비롯되었고, 문학은 종교에 의해서 육성되었음이 사실인 것 같다. 종교와 문학의 관계에 언급한 테니슨(G..B. Tennyson)과 에릭슨(E.E. Ericson)의 다음과 같은 말은 매우 의미있는 견해라고 생각한다.

(20)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小鼓)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和答)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였더라.(출 15:20, 21)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베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와 함께 춤을 추어 오니라.(삼하 6:14, 15)

(21) R. G. Moulton, The Modern Study of Literature.

「종교와 문학과 관계에 대한 연구는 文學批評의 가장 오래된 관심인 동시에 가장 새로운 관심이다. 그것이 가장 오래된 관심이라는 이유는 우리가 문학이라고 부르는 그 활동이 본래는 종교에서부터 발생하였지만, 다만 점차로 독립된 분야로 떨어져 나갔을 뿐이기 때문이다. 또 그것이 가장 새로운 관심이라는 까닭은 문학이 종교 뿐만 아니라 신념 혹은 어떤 敎訓主義의 개념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그 결과 종교와 문학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또는 兩者 사이에는 정말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들이 생겨난 것은 겨우 지난 150년 동안에 야기된 문제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종교와 문학의 관계를 논한다는 것은 거의 무한정한 옛 일의 화제이기도 하며 또한 완전히 現代性을 띤 화제이기도 하다.»⁽²²⁾

오늘날까지 잔존해 있는 古代의 문학작품들은 문학이 종교에서 비롯되고 종교에 의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해 준다. 예를 들면 구약성경(the Bhagaavad Gita, the Vedas), 그리고 그리이스나 北歐人들의 神話나 傳說 심지어 룬(Runic)문자로 된 조각문이나 묘비문 같은 것조차도 살펴보면, 그 내용이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 종교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들 문서가 적어도 第一次的으로는 문학적 가치를 위해서 만들어 졌다거나, 혹은 문학적 가치를 위주로 취급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들 문서에 대해서 문학 작품 운운하는 것은 문학의 독자성을 인정하려는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고, 기원적으로 말하면 이 작품들은 信仰과 禮拜의 성질에 따라서 발생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한편, 기독교문학의 기원이 태고적부터 인것은 더욱 분명하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시니라.” 라고 시작되는 <요한복음>의 서두가 바로 그 증거이다. 정신, 이성을 의미하는 말씀(logos)은 곧 文學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지가 언어(logos) 곧 문학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문학은 특히 기독교문학은 기독교의 성립기원인 태초부터 존재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종교와 문학의 융합가능성, 특히 기독교문학의 성립가능성을 보게 된다.

사실 성서는 위대한 종교문학서이기도 하여, 종교와 문학의 융합을 증명해 보인다. 성서는 가식없는 인간의 삶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고 선악의 가치 판단 기준을 정확히 제시하여 비유와 대화를 사용하여 사건을 구체적으로 생생히 묘사해 주고 있다. 아울러 위대한 인물(선지자)들의 체험을 통해 삶의 가치를 암시해 준다. 또한 성서는 설화, 대서사시, 서정시 등의 다양한 문학 장르를 내포하고 있다.

프라이(N. Frye)는 성서의 패턴들이 서구 문학의 신화적 구조에 많은 구성 요소로 등장하는 類型論(typology)을 분류하고, 아우얼바하(ErichAuerbach)는 성서의 설화적 유형이 문학에 얼마나 많이 영향을 끼쳤나를 제시해 준다.⁽²³⁾ 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비유는

(22) Religion and Modern Literature : Essays in Theory and Criticism ed.

by G.B. Tennyson and Edward E. Ericson. Jr.(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5), P.9.

(23) <성서의 문학에 끼친 영향>에 관한 문헌들은 다음과 같다.

신익호, 「기독교와 한국현대시」, 한남대 출판부, 1991. PP. 16~17에서 재인용

• N.Frye, Anatomy of Criticism (New York : Athnueum, 1957).

• E.Auerbach, Mimesis : The Representation of Reality in Western Literature. Willad Trask 역 (Garden City, Doubleday Anchor Book, 1957).

• R.G.Moulton, The Modern Study of Literature (The Macmillian Company).

성서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예로서 「시편」에서는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78 : 2) 했고, 또한 예수님 말씀(「마태복음」13 : 35)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비유는 단순한 교훈성을 넘어서 심오한 종교의 진리나 가치성, 윤리적 신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풍부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즉 가르침이나 지시 전달보다는 듣는 이에게 심오하고 다양한 의미를 스스로 각성케 해 준다. 그리하여 청자들이 친숙한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감동을 쉽게 느낄 수 있다.

영국의 필립 시드니(Philip Sidney)의 경우에도 종교와 문학의 밀접한 관련성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시의 옹호」(Apology for Poetry, 1580)에서 신학적인 입장보다는 문학적인 입장에서 종교문학의 심미성을 옹호한 바 있다. 즉 문학은 가르치며 즐겁게 만드는 것이며, 시의 효용은 엄숙한 신학적 교리의 효용보다는 예술 작품의 심미성으로 즐거움을 내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는 신앙시의 목적은 단지 상상할 수 없는 신의 위대함을 모방하는 것 더 이상은 아니라고 본다. 그는 신앙시의 근본적인 모델로 성서의 시적 영역인 「시편」, 「雅歌」, 「욥기」 등을 거론했다.⁽²⁴⁾ 아울러 문학 이론의 모델로서는 성경의 예와 교리를 사용했다. 다윗의 「시편」과 성경 속의 예언을 문학 작품으로 보았고, 4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의 비유들을 구체성과 경험적 실감을 자아내는 시적인 표현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를 고려할 때, 오늘날 종교와 문학을 서로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는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학에서 종교를 排除하거나 경시하려는 태도는 과학문명의 발전으로 생겨난 無神思想과 不信風潮가 몰고온 해독으로, 문학의 활동 영역을 축소시킬 뿐 아니라, 문학 자체의 存立 가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쉽다. 또, 반면에 종교에서 문학을 배척하고 문학을 인간의 허영을 조장하는 죄악으로 간주하려는 태도도 역시 부당한 것이다.

4.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고대 이후 문학과 종교는 일치되어 인류의 정신문화를 이끌어 왔으나 중세시대에는 신학과 문학이 분리되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그것이다.

영국의 문학자 매튜 아놀드는 그의 力著인 「教養과 無秩序」 속에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 이 두 세력의 力點 사이를 우리가 사는 세계는 움직이고 있다”고 갈파하였다.⁽²⁵⁾ 헤브라이즘도 헬레니즘도 궁극의 목적인 인간의 완성 혹은 구제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 궁극의 목적을 성서에서는 “情慾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神의 性品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벧후1 : 4)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영적인 神의 성품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헤브라이즘이다.

헬레니즘이란 자기네 스스로를 헬라스의 백성이라 부르던 그리스의 정신이다. 그들은 感性과 知性を 중요시하고 現世의 삶을 기뻐하며 인간의 자아를 강조한다. 그리스 문화의 基調는 한마디로 인간적이다.

이와는 반대로 헤브라이즘이란 기독교 사상에 바탕을 둔 것이다. 靈性と 德性を 崇仰하고 末世를 希求하며 神에게 歸依한다.

(24) A.S.P. Woodhouse, The Poet and his Faith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5), P. 16 재인용.

(25) 김희보, 한국문학과 기독교, 현대사상총서14, 현대사상사. 1979. PP. 257~260.

헬레니즘의 최고 관념이 사물을 여실히 보는 것인 반면, 헤브라이즘의 최고 관념은 행위와 복종이다. 히브리인들의 행복에 관한 관념은 “律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잠29 : 18)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112 : 1)라는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스인의 행복의 관념은 올바르게 생각하는 데 있었다. 헬레니즘의 지배적 관념은 의식의 자발성이다. 헤브라이즘의 그것은 양심의 엄격성이다. 그리고 헤브라이즘의 계승인 기독교는 그 본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헬레니즘도 헤브라이즘도 인간성의 모든 요구에서 생겨난 것이고 그 요구를 충족시키려 한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만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다.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차이점은 우선 그 인간관에 나타난다. 그리스 사상에 있어서 인간은 하나의 자연적인 존재였다. 그 반면 헤브라이즘에 의하면 인간은 단순한 자연적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대한 책임있는 존재로서 본질적이며 인격적인 존재인 것이다. 그리스인이 어디까지나 현실적이었음에 비하여, 히브리인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초자연적인 역사의 완성을 기다리는 終末의 信仰에 바탕을 두었다. 그리스인들이 문화적이었던 반면에 히브리인들은 본질적으로 윤리적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인들이 문화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오직 그들은 문화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규정되고 방향 지워지기를 구하였던 것이다. 이로 보아서 헤브라이즘은 헬레니즘을 초월하여 그것을 그 속에 內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매튜 아놀드의 지적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차이점을 알려준다.

기독교는 이 안다는 사실보다도 행동을 더 중시하는 헤브라이즘의 본질적인 경향을 조금도 변질시키지 않았다. 자기 극복이나 헌신이나 우리들 스스로의 개인적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일인 복종은, 우리들이 헤브라이즘이라 이름지은 혼란 중 이런 종류의 기초적인 관념이기도 하다. 오직 헤브라이즘이 인간 생활을 뒤덮은 바, 낡은 율법과 법률의 그물은 소기의 결과 ‘인내하여 바른 행위를 지속하는 것, 즉 자기 극복’을 가져올 추진력과 철저성이 결여되었다는 원동력이 밝혀졌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것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제공된 자기 극복의 그 영감과 감동을 주는 모범에 대한 무한한 헌신으로 대처하였다. 이 새로운 본질을 원동력으로 삼아, 기독교는 바울이 잘 표현 했듯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롬3 : 31)

일찌기 이스라엘의 豫言者 스가라가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겠다”(슥9 : 13)고 한 바처럼 시온(헤브라이즘)과 헬라(헬레니즘)의 거리는 먼 것이다.

이러한 헬레니즘의 시점은 르네상스 시대에 부각되었던 휴머니즘(인간중심적 태도)를 말하며, 종교적 시점(특히 기독교적 시점)이란 헤브라이즘을 말한다. 헤브라이즘은 단순한 인간 부정이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활동의 自覺的인 函數인 것이다. 즉, “인간=함수”의 수학적 공식이 성립된다.

특히, T.E.홈(Hulme)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곧 종교적 태도와 휴머니즘적 태도라는 두 세계관을, 역사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해 왔던 세계관으로 지적하고 이 두 세계관을 예술에 적용시켜 ‘幾何學的 藝術’(geometrical art)과 ‘生命藝術’(vital art)로 구분 한 바 있다.

‘기하학적 예술’은 인간에서 찾을 수 없는 엄숙성, 추상성, 종교적인 감동이 중심을 이루고 ‘생명예술’은 모든 생명 현상을 기쁨과 쾌락으로, 생동적이고 부드러운 선을 나타낸다고 했다.

아우구스투스 시대부터 르네상스 시대까지 지배해 왔던 세계관은 “종교적 태도”로서,

종교와 윤리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한 시대로 완전한 종교만이 불완전한 인간에게 가치와 질서를 부여한다고 하였다. 즉 유한성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종교로써만이 완전한 존재가 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세 이후 현대는 “휴머니즘적 태도”로서, 인간이 종교에서 해방되어 인간의 무한성과 선한 가치관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의 개성을 존중하여 생겨 발생한 문예사조가 18C末의 낭만주의적 예술관이다. 낭만주의자는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기에 절대적 종교관을 생명적인 카테고리로 설명하여 인간의 완전성은 인격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일환으로 성서에 계시된 신성이나 신비적 요소를 탈피하여 성서를 초대 교회의 역사와 히브리인들의 삶의 모습이 명시된 문서로 이해하려 했다. 즉 성서와 문학을 분리시키지 않고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서구 유럽에서는 기독교문학이 활발히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현대는 문학과 종교가 상보적 관계로 인간의 정신문명을 이끌어 간다고 보는 점이다.⁽²⁶⁾ 시적 경험이 원초적으로 종교적 경험과 일치한다고 보는 것인데, 바로 이점에서 우리는 종교문학, 특히 기독교문학의 또하나의 성립가능성을 추출해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인식은 근대 이후의 사상가나 작가들에게 보편적인 사유경향으로 되어 왔다.

러스킨(Ruskin)이 미의 근원은 신의 속성이라고 한 것이나, 헷세(H.Hesse)가 예술은 온갖 것의 배후에 신을 나타내는 것이라 한 데서 잘 나타난다. 또한, 마리오 프라즈(Mario Praz)는 예술은 종교이기 때문에 그것은 삶에 가치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고,⁽²⁷⁾ 파스칼(B. Pascal)도 기독교의 본질이란 현대인의 비극을 특수하게 각성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²⁸⁾ 파스칼은 聖性の 이상이란 세계와 더불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계와 대립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현실적인 우리의 삶을 도피하거나 초월하기 보다는 대립과 적응함으로써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엘리어트(T.S.Eliot)도 기독교인의 정신적 생활과 문학적 경험을 일치시키려 했다. 그가 관심을 갖는 것은 종교문학이 아니라 종교와 모든 문학과와의 관계는 어떠한 것이라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즉 의식적이며 한정된 관계에서 의식적인 조작의 산물은 가치성이 없다는 것이다. 계획적이거나 도전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무의식적으로 기독교적인 작품이어야 한다고 본다. 문학적 판단과 종교적 판단을 분리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며, 그러한 분위기가 얼마나 불합리하며 완전히 분리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기독교인을 상대로 한 문학의 두 종류가 존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본다. 그 자신도 초기에는 문학의 독립성을 주장했지만, 후기에는 어떠한 문화도 종교와의 관련 속에서 발전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문학 비평도 정확한 윤리적 신학적 관점에서의 비평에 의하여 완성되어야 한다고 한다.⁽²⁹⁾ 이 뜻은 기독교의 독자나 비평가는 작품이 구체적인 인간 경험에 의해서 주는 照明을 중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작품의 철학적 및 윤리적 관점을 기독교적 입장에서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베텔(S.L.Bethell)도 문학 비평이나 철학의 한 측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두영역의 학문이 문학 비평의 장을 제공한다고 본다.⁽³⁰⁾ 또한, 노만 포오스터(N.Foerster)도 허구적인 문학이 단지 즐거움이나 쾌락만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의 행동이나 본질을 모방하는 것이라면, 문학 비평도 심리적 평가와 윤리적 평가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질 때 작품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았다.⁽³¹⁾

한편 엘리어트도 종교문학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첫째는 문자로 기록된 기독교 문헌으로, 광의의 문학적 의미에서 평가되는 欽定譯 성서이다. 즉 광의의 문학 개념으로 문자로 기록된 역사, 철학 등의 모든 문서는 문장의 재질로 보아 문학으로 본다.

둘째는 <신앙시>로, 종교시인이라 시의 모든 주제를 종교적 정신으로 다루기보다는 제한된 부분만을 취급하는 작가이다. 이것은 인간의 중요한 정열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도외시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그 정열에 대한 자기 무지를 폭로하는 二流詩로 본다. 즉 광범위한 일반 의식을 다루기보다는 종교라는 카테고리의 제한된 부분만을 취급한다.

셋째는 종교적 대의를 전파하는 데 성심껏 노력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의 작품을 두고 말한다. 즉 선전이 라는 항목에 넣을 수 있는 작품이다.

엘리어트가 특히 “시를 사랑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시’란 일종의 二流詩이다. 즉 종교 시인이라 모든 시적 주제를 종교적 정신으로 전부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다루는 사람이며, 인간의 중요한 정열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도외시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러한 정열에 대한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는 시인인 것이다.”⁽³²⁾ 라고 했을 때, 엘리어트는 시가 어떤 목적을 두고 쓰여지는 것을 철저히 배격하는 입장이다. 도덕, 윤리, 정치 등의 목적 의식이나 또는 교리에 편승하여 주제를 국한시키면 예술성이 상실된다는 뜻으로 시가 종교에 예속될 때 이류시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리런드 라이켄(Leland Ryken)도 종교와 문학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등시하고 있다.

첫째, 시와 기독교는 모두 구체적인 지상의 삶에 치중하기 때문에, 문학 그 자체가 기독교적이다.

둘째, 시와 기독교는 특정한 것과 개인에 대하여 관여하기에, 시를 읽고 창작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동이다.

셋째, 문학과 종교는 가치와 존재의 의미에 관여하기에, 문학은 종교적 활동이다.

넷째, 문학과 종교는 물질계를 넘어 신비와 초월을 지향한다.

다섯째, 문학과 종교는 신호와 상징을 사용하기에, 문학 작업은 동시에 종교적 작업이다.

여섯째, 문학과 종교는 “인생의 근본적 샘”이며, 모두 인생의 축제이며, 존재(Being)에 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학을 탐구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행동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리런드 라이켄이 문학과 종교를 동등시하는⁽³³⁾ 것도 구체적인 인간의 삶 속에서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추구하며 신비와 초월을 지향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문학과 종교의 언어는 비유적, 역설적, 상징적이기 때문에 무한한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26) 김희보, 앞의 책. PP. 18~21.

(27) Curt Hohoff, 한승홍 譯, 「기독교 문학이란 무엇인가」(Was ist Christliche Literatur), 두란노서원(1986), P. 79 재인용.

(28) Ibid. P. 15.

(29) Leland Ryken, Triumph of the Imagination (Intervarsity Press, Downers Grove, 1979), P. 126. 재인용

(30) S.L. Bethell, The Literary Outlook, (London, 1943 : THE Christian News-Letter, No. 17), P. 74.

(31) “The Esthetic Judgment and the Ethical Judgment”, in The Intent of Critic, ed. Stauffer, P. 74.

(32) T.S. Eliot, “Religion and Literature” Selected Essays (Faber and Faber Limited, London, 1951), P. 390.

(33) Leland Ryken, op.cit. P. 236.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은 인간이 예술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재능을 부여받았음을 뜻한다. 인간의 상상력은 궁극적으로 조물주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일부분에 국한될 뿐이다. 인간이 창작에 동참함은 조물주의 창조 과정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다. “문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간의 진정한 목적은 아니더라도 이것과 어느 정도 유사하면서도 육체적인 즐거움이나 물질에 대한 인간의 본능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기록한 것이다.”⁽³⁴⁾

그러므로 문학 속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이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가치관과 꼭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별개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것은 주로 문학적 주제가 애정, 물질적, 충동적 욕구, 범신론 등의 내용이라도 궁극적으로 사랑과 진리, 도덕 의식 추구, 휴머니즘 옹호 등의 기독교 사상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비로소 종교와 문학의 합일점, 또는 종교 문학의 성립 지점을 확실하게 추출해 낼 수 있다. 더구나 문학이 인간성을 창조하고 도덕 의식을 추구하며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면,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며 사랑과 봉사와 구원으로써 인간의 삶을 제시하고 꿈을 주는 성서가 가장 적합하다는 견해도 토로해 낼 수 있겠다.

종교란 인간의 본질을 요약하며 역사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인간이 깊이 믿고 있는 것은 그의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³⁵⁾

(34) C.S.Lewis, "Christianity and Culture" in Christian Reflection (Grand Rapids : William B. Eerdmans, 1967), P. 26.

(35) Charles I. Glicksberg, Literature and Religion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Press, 1960). P. 51.

아미노산과 脂質間의 非酵素的 褐變에 있어서 Aw와 溫도의 影響

Water Activity and Temperature Effects on Maillard
Reaction of Amino Acids and Lipid in Model System

徐 載 壽*

목 차

- I. 緒 論
- II. 材料 및 方法
 - 1. 材料
 - 2. 方法
- III. 結果 및 考察
 - 1. AW의 影響
 - 2. 溫도의 影響
 - 3. 褐變의 Kinetics

Abstract

This studies were investigated the browning reaction of model system(amino acid-fish oil). The 23 amino acids and oil induced during dehydration Aw 0.52 to 0.95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 I - showed high rate at Aw 0.74 than at Aw 0.52, 0.95(lysine, histidine,

* 부교수(식품영양학과), 식품화학전공